

어학연수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 | | | |
|------|-----------------|------|-----------------|
| 학과 | | 이름 | 김_희 |
| 파견국가 | 캐나다 | 파견도시 | Vancouver |
| 파견대학 | Langara College | 파견기간 | 2016.09~2016.12 |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 구분 | 결과보고(서술형) |
|------|---|
| 파견대학 | <p><i>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i></p> <p>캐나다 밴쿠버 랑가라 컬리지에서 공부했습니다. 규모는 순천향 대학교와 비교하여 매우 작습니다. 학교 전반적인 시설은 괜찮았으며 도서관은 지어진지 얼마 되지 않아 매우 좋았습니다. 학교 전체적으로 외국인 학생들이 많아 다른 나라 문화를 경험하기 좋았고 교통적인 요건도 괜찮았습니다.</p> |
| 수업 | <p><i>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i> <i>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i></p> <p>파견기간 동안 2session을 수강합니다. 1session이 7주 과정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저는 LEAP2와 LEAP3 수업을 받았습니다. 받은 시험결과에 따라 나뉘지는데 수업은 12:30분부터 4:30분까지 진행되고 20분간의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수업 자료는 매주 선생님이 나눠주시고 수업 내의 프로젝트에 따라 책이 필요합니다. 그 책 알게 된 날 도서관으로 빨리 가서 대출해서 읽으시면 돈 절약 할 수 있습니다. 한 세션에 1~2권 정도 필요합니다. LEAP2 와3 수업방식이 매우 다릅니다. LEAP2는 리딩, 리스닝, 라이팅, 스피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 주 4과목의 평가시험을 보며 마지막 주에 파이널 평가가 있는데 70프로를 넘지 못하면 다음 과정으로 가지 못합니다. LEAP2 반에서는 직접 그 주 주제에 대한 현장학습을 가기도 합니다. 캐나다 내에 유럽인과, 일본인, 중국인 들이 초기에 도착했을 때 일하던 슈퍼드, 경찰박물관, 인류 박물관에 직접 방문하여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다른 교수님의 수업에 들어가서 그 교수님이 수업을 듣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것을 경험할 수 있어서 개인적인 견해로는 LEAP 2 수업에 더 만족했습니다.</p> |

| | |
|---------|---|
| | <p>LEAP 3에서는 리딩, 라이팅, 리스닝으로만 진행됩니다. 선생님마다 채점 방식이 달라 답변 작성하는데 어려웠습니다. LEAP3에서는 주로 체계적인 문장을 쓰는 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2,3 레벨 모두 숙제가 많았으며 하루에 1시간 30분정도 필요했습니다. 선생님들은 모두 활동적이고 친절하시며 수업에 대한 열정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지루해 하지 않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서 1학기 내내 즐거운 마음으로 다닐 수 있었습니다.</p> |
| 프로그램 운영 | <p><i>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i> <i>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i></p> <p>도착 한 첫 주는 시험과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됩니다. 시험은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로 이루어지며 하루에 진행됩니다. 오리엔테이션에 홈스테이 생활, 수업, 준비물 전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됩니다. 이 때 보험에 관해서 설명하는 날이 있는데 한국에서 가입한 보험 서류 보여주시면 됩니다. 랑가라 측에서 보험금액이 너무 작다며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2개 session 동안 거주 할 예정이라고 말하면 받아 줍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시 IE OFFICE에 가시면 친절히 도와줍니다. 학교 내에 동아리와 외국인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p> |

3. 생활전반

| 구분 | 결과보고(서술형) |
|----|---|
| 날씨 | <p><i>현지 기후 및 유의점</i></p> <p>밴쿠버에 처음 도착했을 때가 8월이었습니다. 8월 말 도착했을 시 날씨는 "시원하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밖에 에어컨을 틀어 놓은 날씨인데 하늘은 맑고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날씨가 선선하여 도착했을 때부터 얇은 긴팔을 입고 생활했습니다. 10월 달 중반까지는 데이트타임도 길고 비도 많이 오지 않아 생활하기에 좋고 여행 다니기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10월 말부터 12월 초반까지는 비가 정말 많이 옵니다. 일주일에 1~2번 정도 맑은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데이 타임도 짧아져 4시 30분 정도면 어두워 졌습니다. 비 오는 날씨와 어두운 날을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산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11월 달부터 갑자기 추워졌는데 패딩, 목도리, 장갑 다가져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건조합니다.</p> |

| | |
|----|---|
| 안전 | <p><i>현지 안전 상황</i></p> <p>홈스테이, 학교, 다운타운 주변 모두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너무 늦게만 돌아다니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Main st 과 Hastings st 은 홈리스들이 많아 위험합니다. 낮에도 혼자 다니기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버스타고 지나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홈리스들과 술 취한 사람들이 기사에게 난동부리고 승객들에게 민폐를 끼친 장면을 몇 번 본적이 있어 그 곳을 지나가야 하면 다른 길로 돌아 갔습니다.</p> |
| 숙소 | <p><i>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i></p> <p><i>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i></p> <p>랑가라 컬리지에서 연계해주는 홈스테이에서 4개월 정도 지냈습니다. 홈스테이 가족 분들 모두 친절하셨고 정말 가족같이 대해주시려 노력하셨습니다. Thanks giving day와 같은 파티나 모임에 초대해주셨으며 Halloween day와 같은 이벤트 시즌에 같이 근처 공원에 놀러가는 등의 활동을 같이하였습니다. 캐나다 문화를 많이 접해보도록 행사나 여행지를 자주 추천해주셔서 밴쿠버에서 캐나다 문화를 잘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학교까지 직접 가는 길을 알려주시고 핸드폰 개통, 교통카드 이용하는 방법 등 캐나다 생활에 익숙해지기 위한 정보들을 제공해주셨습니다. 못 먹는 음식은 홈스테이 가정에 이야기 하면 바로바로 대처해주셨습니다. 규칙은 까다로운 점은 없었습니다.</p> |
| 식사 | <p><i>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i></p> <p><i>외부식당 (✓) 직접 요리 () 기타 ()</i></p> <p><i>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i></p> <p>홈스테이 가정이 중국계 캐나다 분이셔서 가끔 중국음식이 나왔습니다. 저한테는 중국음식의 특유의 향과 채소 때문에 먹기 힘들었습니다. 또한 닭 음식을 너무 자주 주셔서 초반에는 음식점에서 많이 사먹었습니다. 한국이 아닌 캐나다에 왔으니 100% 만족을 할 수 없겠지만 밴쿠버 도착 후 2달 정도는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고생했던 것 같습니다. 홈스테이 내에서 요리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다운타운에 가면 한국 음식점이 많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격대비 맛이 뛰어나진 않습니다. 또한 다운타운에 한인 마트가 있어 라면, 떡볶이, 김치 등등 다 판매합니다. 캐리어 공간이 부족하다면 음식은 안 가져오셔도 될 것</p> |

| | |
|----|--|
| | 같습니다. 다운타운에 가면 여러 나라 음식점 들을 쉽게 찾을 수 있어 다른 나라 음식 경험해 보는 것도 좋았습니다. |
| 교통 | <p><i>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i></p> <p>밴쿠버 전반적인 교통 시설은 좋습니다. 버스, 한국 전철과 비슷한 스카이트레인 모두 한국과 비슷한 정도이고 1시간 30분 동안 환승이 됩니다. 제 홈스테이 집은 학교와 도보 10분 거리여서 먼슬리 패스를 구매하지 않고 걸어 다녔습니다. 교통수단 이용할 때 교통카드를 이용하는데 스카이트레인 역과 편의점에서 구매 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 집이 거리가 있다면 먼슬리 패스권을 끊어서 사용합니다. 저는 집이 가까워 필요시에 교통카드 충전해서 다운타운 나갈 때만 사용했습니다. 교통수단 이용 금액은 이용 시 마다 충전해서 사용했는데 여행이나 시내에 자주 갈 예정이라면 한 달에 50달러 정도 예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스 밴쿠버의 몇몇 여행지들은 무료 셔틀이 있으니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택시는 가격이 정말 빨리 올라갑니다. 10분정도에 2 만원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되도록 이면 택시는 이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p>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 항목 | 비용 |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
|------|---|---|
| 항공료 | 799300원 | ANA항공, 5월 정도 구매, 하네다 공항 경유 |
| Fees | | |
| 보험료 | 96260원 | 한화 다이렉트 해외 장기 체류 보험, 국내에서 해외여행자 보험 신청해서 갔습니다. |
| 숙소 | (800*3) + (26*18)=\$2868 픽업비용 75 달러 정도 | 한 달 비용은 800달러, 하루비용은 26달러입니다. 마지막 달은 18일 계산해서 지불했습니다. |
| 교통비 | 약 \$50 | |
| 책값 | \$ 30 | 수업시간에 필요한 책 |

| | | |
|------|----------------------|---|
| 용돈 | \$500 | 핸드폰비, 책값, 교통비 포함 |
| 핸드폰비 | 유심비 \$11 한 달 \$55 | Fido 데이터 2GB, 문자 무제한 요금제 \$50 , 세금 \$5 첫 달에 직접 매장 가서 내야합니다. 도착하신 달이 며칠 남지 않았다면 그 다음 달에 개통하는 걸 추천합니다. 8월 말에 도착해서 개통했는데 3일 쓰고 65달러정도 지불했습니다. |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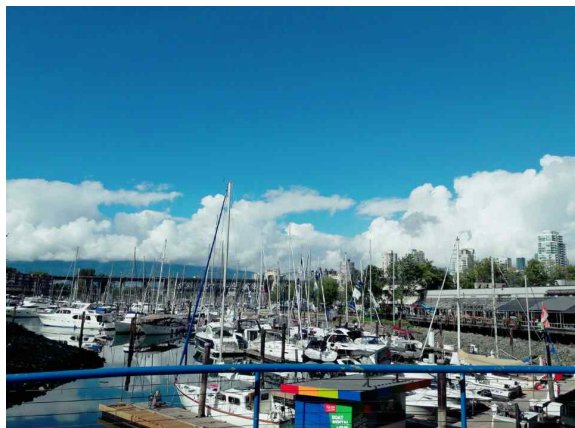
삼푸, 린스 등의 세면도구나 한국음식은 밴쿠버에 사셔도 됩니다. 세면 용품들은 세일을 자주해서 한국보다 더 싼 경우도 많습니다. 한인 마트가 한국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1달러 정도 차이로 두고 오셔도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 대신 저는 옷을 조금 더 가져오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캐나다 옷들이 대부분 한국에 비해 가격이 비싸거나 비슷한데 질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밴쿠버에 생활하면서 이 돈을 주고 이 옷을 사야하는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시기 전에 일상적인 영어회화는 공부하고 오는 것 적응하는데 쉬운 것 같습니다. 밴쿠버에 막상 도착하니 영어로 대화하는데 단어도 까먹고 문법도 다 무시하며 현지인들 일상적으로 말하는 대화는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오시기 전에 바인더랑 형광펜 준비해 오면 좋습니다. 수업 유인물을 바인더에 꽂아 다니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밴쿠버에서 바인더 살 당시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용품도 비슷비슷 하니 여기서 구매하셔도 됩니다.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이나 친구 생일 때 쓸 편지지도 가져오시면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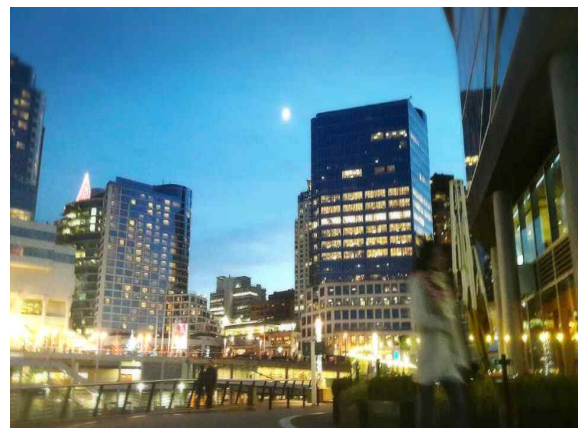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밴쿠버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4개월이라는 시간이 언제 지나가나 싶고 한국이 많이 그리웠었는데 막상 갈 때가 되었다니 아쉽습니다. 캐나다 랑가라 컬리지를 온 이유가 영어적인 면에서 발전하고 싶은 면도 있었지만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워보고 서였는데 중국, 일본, 한국, 사우디, 이란, 브라질, 베트남 등의 나라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다른 나라 문화를 경험하기에 적합한 나라였습니다. 이제 막상 떠나려니 정든 친구들과 헤어져야한다니 아쉽습니다. 4달이란 시간이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동안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고 안목적인 부분에서도 넓어진 것 같습니다. 학교 클래스 메이트들과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와서 힘든 점도 공유하고 같이 여행 다니면서 많이 정들었는데 떠난다니 친구들 만나러 다시 밴쿠버에 오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밴쿠버에 와서 캐나다를 경험해 보기 위해 많은 사람과 대화해보고 많은 친구들도 만나고 최대한 많이 경험해 보려 노력했습니다. 4개월 동안 열심히 경험하고 배우다 보니 이런 점에서 아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 파견되기 전에 어느 정도의 기본 회화는 공부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왔다면 조금 더 많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사진설명 : 그랜빌 아일랜드



사진설명 : 캐나다 플레이스



사진설명 : 스탠리 파크



사진설명 : 밴프



사진설명 : 캐필라노 서스펜션 브릿지



사진설명 : 빅토리아 국회의사당